

# 식도암

김 총 배 ·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 1. 원 인

**식**도암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에게 발생빈도가 높다. 아시아에서 중국, 카자흐공화국, 일본, 방글라데시, 몽고 등에 발생빈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남자의 암 발생순위 5위를 차지한다. 특히 동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과거에 뜨거운 차가 원인이라 하였으나, 최근의 보고서에 의하면 발효된 음식의 곰팡이 균이 원인이라고도 한다.

절인 야채나 훈제고기의 나이트로소 화합물질, 비타민, 아연 부족, 흡연, 음주 등도 관련이 많다고 한다. 다른 발생원인으로는 양젖물로 인한 식도손상, 식도이완불능증, 유두종바이러스 같은 질환에서도 식도암을 일으킬 수 있다.

## 2. 임상증상

식도내경이 50%이상 좁아진 경우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므로, 연하곤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미 진행이 된 암이다. 또한 딱딱하고 마른 음식을 삼킬 때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자극이 있을 경우 일단 식도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음식이나 침을 삼킬 때 목 부위에 이물감을 호소하는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50%이상에서 식도나 위의 질환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목 부위에 이물감이 있는 환자는 이비인후과적 이상소견이 없을 경우 식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12



식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탄 고기를 먹지 않으며 술·담배를 절제해야 한다.

저자가 경험한 환자 중 3개월간 계속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다닌 중년 남자는 식도·위경계부위에 암이 있었으나, 발견이 늦어 수술시기를 놓쳤다.

해부학적 구조로서 식도에는 밸브가 2개 있다. 목 부위에 상부식도 괄약근 및 식도·위 경계 부위에 하부식도괄약근이 있는데 이 두 밸브는 음식을 삼킬 때 동시에 열린다. 식도·위 경계 부위에 암이 있는 경우, 하부 밸브의 기능장애로 연하곤란 증상이 있기 전에 먼저 목에 이물감을 호소할 수 있다.

식도암이 흉부에 있으면서 내경이 좁아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도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그외의 증상으로는 체중감소가 있을 수 있다. 목소리가 쉬거나, 호흡곤란, 계속적인 심한 기침, 흡인성 폐염 등이 있을 경우 암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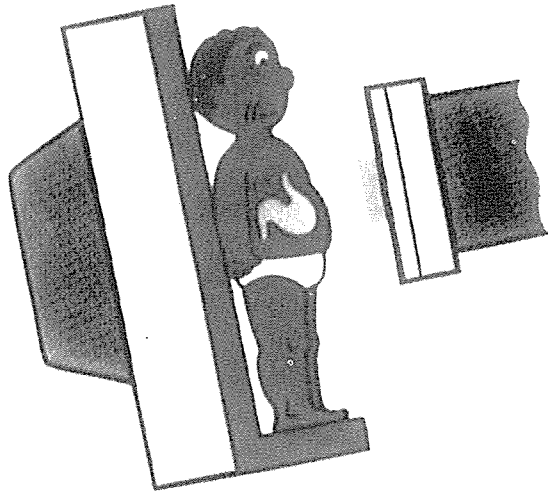
### 3. 진단

내시경으로 직접 식도를 관찰하여 병변을 찾고, 병변을 생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위에 약물을 도포하여 암부위를 관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식도암 조기진단 방법으로 실이 달린 캡슐(술이 들어 있음)을 삼킨 후 5분 후에 실을 빼내면서 식도점막을 술에 의해 세포검사를 함으로써, 조기진단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식도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는 암의 진행정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목 부위부터 복부까지 컴퓨터촬영이 필요하며, 폐, 간, 뇌, 뼈 등의 전이유무 검사를 위해 폐X-선, 뼈동위원소주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다. 식도암의 침윤정도를 알기 위해 초음파내시경, 기관지경검사를 한다.

### 4. 치료

전신적으로 전이가 없으면 수술로서 절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러나 고령(75세 이상)이고, 심장



40세 이후에는 정기검진시 위 뿐만 아니라 식도도 관찰해 보아야 한다.

질환, 심한 폐질환, 간경화증 등의 신체조건이 나쁜 환자에서는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를 권유한다. 전신적으로 전이가 있고 기관지 침윤 등이 있을 때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로서 방사선치료, 항암약물 요법, 자가팽창스텐트, 레이저치료 등을 한다.

### 5. 예방

원인적인 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신선한 야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탄 고기를 먹지 않으며, 술, 담배를 절제한다. 아주 뜨거운 물이나 차를 가능한 한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다.

### 6. 결론

40세 이후에는 정기검진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고 검사할 때 위 뿐 아니라 식도도 관찰하여, 의심있는 부위를 약물로 도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을 삼킬 때는 목에 이물감 및 가슴에 통증, 자극이 있을 때는 식도전문의를 찾아 진료 및 식도에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특수기구를 이용, 세포검사를 함으로써 조기진단, 조기치료 만이 식도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

또한, 조기진단을 위하여 일본에서처럼 국가적으로 집단검진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72